



제생의세

원광대학교병원 소식,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제 336호

차세대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2026년 6월 1일 (월)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스마트병원·양성자치료센터 구축 통해 미래의료 선도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일시 : 2026.05.20(수) 16:00 장소 : 원광대학교병원 외래 1관 4층 대강당

지난 20일 병원 외래 1관 4층 대강당에서 개원 46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울 익산시장을 비롯해 원광학원 모찬원 상임이사과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주요 보직

자 및 4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해 개원 46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우리병원은 1980년 이리종합병원을 인수·개원한 이후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호남·서해안 권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일영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갈등 등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준 교직원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선

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고, 메디컬AI 빅데이터센터 운영과 다양한 AI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미래 의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병원 구축과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병원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와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한 교직원 및 장기근속 교직원에게 시상도 진행됐으며, 개원 46주년을 기념해 교직원 46명을 대상으로 한 경품권 추첨 행사도 마련돼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학교병원, 호남 최초 장애인 사이클팀 창단

- 익산시와 협력해 ESG 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앞장 -



지난 19일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정현울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서일영 원광대학교 병원장을 비롯해 전선주 대한장애인

인체육회 선수촌장, 홍력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 체육계 및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사이클팀 창단식

을 개최했다.

이번 창단은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창단은 우리병원과 익산시가 협력해 추진한 지역사회 기반 공공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우리병원은 이번 창단을 계기로 의료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특히 장애인 선수 고용 안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일영 병원장은 "장애인 사이클팀 창단은 선수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무대이자, 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결실"이라며 "호남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이철 교수,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 ‘Editor of Distinction Awards 2026’ 수상



마취통증의학과 이철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철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가 선정하는 ‘Editor of Distinction Awards 2026’를 수상하며 국제 학술계에서 연구·편집 역량을 입증했다. 스프링거 네이처는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학술지를 보유한 학술출

판사로, 논문의 완성도 향상과 공정한 동료심사 체계 확립에 기여한 상위 20% 편집위원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Springer Nature는 “이철 교수는 학술지 네트워크 확대와 연구자 지원, 엄격·신뢰 높은 심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며 학문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철 교수는 “국제학술지 편집 활동은 연구 윤리와 학문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임상 연구와 국제 학술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경과 이학승 교수 연구팀, 어지럼증·시력저하 동시 유발하는 “자가면역 혈관염” 기전 규명



신경과 이학승 교수

신경과 이학승 교수가 고려대학교 병원 이선욱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지수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소뇌 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더 세레벨럼(The Cerebellum, 5-year IF 2.9)’ 최신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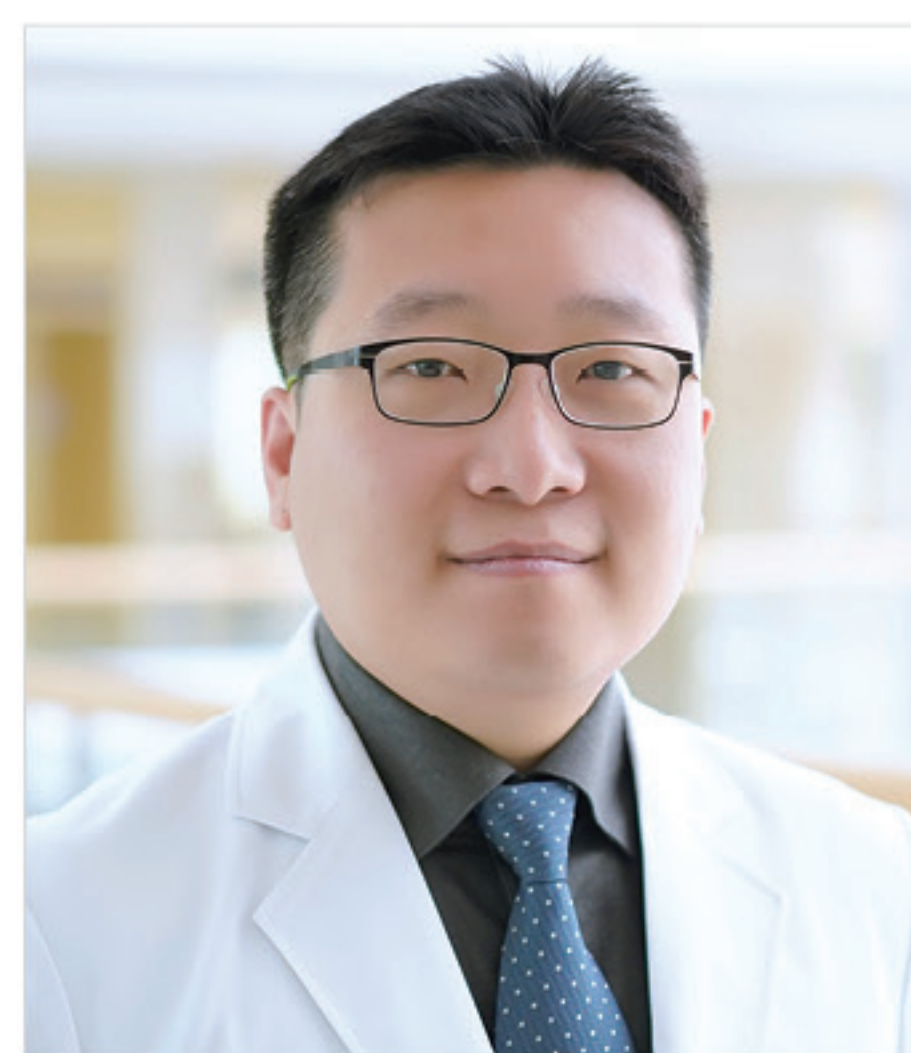
그동안 원인이 불분명했던 자가면역 혈관염으로 인한 소뇌 염증과 망막 허혈의 발생 기전과 진단 및 치료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던 어지럼증과 시력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다.

신경과 이학승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던 어지럼증과 시력 저하를 동시에 호소하던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과·핵의학과 공동 연구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조기 예측 가능성 규명



재활의학과 김지희 교수



핵의학과 김명현 교수



재활의학과 최성복 전공의



재활의학과 이종준 전공의

재활의학과·핵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난치성 통증 후유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조기 예측 가능성

을 새롭게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재활의학과 김지희 교수와 핵의학과 김명현 교수, 최성복·이종준 전공의 연구팀이 공동 수행했으며, 연구 결

과는 뇌졸중 재활 분야 국제학술지 Topics in Stroke Rehabilita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뇌 혈류 전문 검사인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을 통해 소뇌 기능 저하 현상인 ‘교차소뇌기능해리현상(CCD)’를 조기에 발견할 경우 향후 CRPS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통증이 나타나기 전 환자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환자 맞춤형 조기 재활 치료와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재활 치료 효과와 환자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김선태 교수, 고압산소치료 역할 및 치료 효과 소개



응급의학과 김선태 교수

고압산소치료팀장 김선태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고압산소치료(HBOT)의 치료 효과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내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콜라에 탄산이 녹아들듯, 고압 환경에서 혈액에 산소를 많이 녹여 치료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높은 압력 환경에서

100% 산소를 흡입해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이는 치료다. 과거 잠수병·일산화탄소 중독 중심에서 최근에는 당뇨발, 화상, 버거씨병, 방사선 치료 후 조직 괴사, 피부이식 및 접합수술 후 상처 치료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김선태 교수는 “우리병원은 해상 사고, 화재, 가스 중독 등 응급·중증 질환 발생 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신속한 치료에 힘쓰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소방 등과 협력해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양찬모 교수, 학생 자살예방 플랫폼 개발 연구 본격화



정신건강의학과 양찬모 교수

우리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학생 자살예방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학교-지역 사회 연계 기반 AI 활용 학생 자살 예방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양찬모 교수를 중심으로 학생 정신건강 위

기 대응과 자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본격 나선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학교 기반 자살예방 정책과 운영 사례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학령별 특성과 위험 요인을 반영한 조기발견·지원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정신건강 상태와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을 연계한 통합형 학생 자살예방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2026년도 상반기 임상교수 연수 개최... 의료 AI 활용 역량 강화



지난 28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임상교수 및 기초교수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임상교수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역량과 미래 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료·연구·교육을 수행하는 임상교수들을 대상으로 최신 의료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 방향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연에서는 원광대학교 김준우 교수가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멀티모달 AI 기반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우리 병원 양찬모 교수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와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획득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주관하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매우 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검사실 운영을 비롯해 진단혈액,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수혈의학, 진단면역, 유세포, 조직적합성, 세포유전, 분자진단, 종합검증, 현장검사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박도심 진단검사의학과장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연속적으로

획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 제공을 통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료 판단을 돕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 국제학술대회서 다수 수상



우리병원이 '2026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오형주·유대

진·최보름 방사선사가 우수 구연상을, 권성철 방사선사가 장려학술상을 수상했다. 핵의학과에서는 이남주 기사실장이 '변화와 혁신의 가치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미래의 방사선사'라는 슬로건으로 최우수 슬로건상을 수상했다. 또한 핵의학과 소속 이지현 간호사, 주성욱 방사선사, 광지중 임

상병리사가 2026년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시험에 모두 합격하며 학술 활동과 더불어 전문 자격 기반의 실무 역량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

핵의학과,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2관왕



우리병원 핵의학과가 '제73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학술상과 우수학술구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핵의학과 광지중 임상병리사가 수행한 연구 성과로, 「Impact of Delayed Sample Separation and Storage Conditions on Insulin Stability」 연구를 통해 우수논문학

술상을 수상했으며, 「핵의학 검체 검사실 검사용 키트의 유해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 연구로 우수 학술 구연상을 수상해 검사실 안전관리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우수논문학술상 수상 포상으로 오는 11월 일본 히메지에서 개최되는 「제14회 Asi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ASNMT)」 참가 및 학술 발표 기회도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광지중 임상병리사는 "좋은 기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6년도 팀·실장 연수 통해 조직 리더십 강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주요 부서 팀·실장 및 지원 인력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원광대학교병원 팀·실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의료 및 병원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간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AX 시대의 리더십 솔루션'을 주제로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조직 내 소통과 협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병원 정책 사례 학습과 팀별 협업 프로그램, 5주기 인증평가 대비 특강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 중심 리더십,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전문의를 소개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윤숙 교수

🏥 진료분야

종합검진 결과 상담 및 진료

소아청소년과

이도진 교수

🏥 진료분야

소아 일반진료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준영 교수

🏥 진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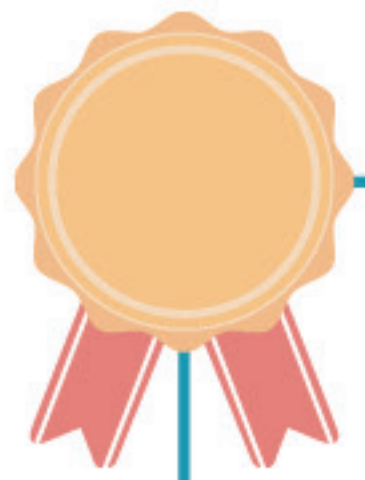
심장 및 흉부외상 및 중환자의학, 체외순환보조술(ECMO)

영상의학과

이승준 교수

🏥 진료분야

중재 영상의학



194회 WKUH 친절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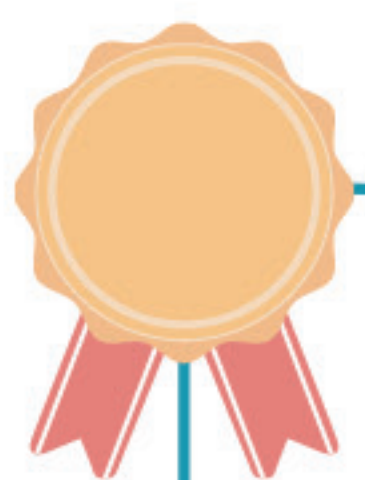


❤️ 71병동 정지선 간호사

안녕하세요. 71병동 정지선 간호사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드린 작은 미소가 위로가 되었다니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를 친절직원으로 추천해주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은 아픈 곳이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배려와 친절은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정을 더 세심하게 환자분들을 살피라는 격려로 여기며, 앞으로도 환자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회 WKUH 친절부서



❤️ 원무팀

원무팀이 친절부서로 선정되어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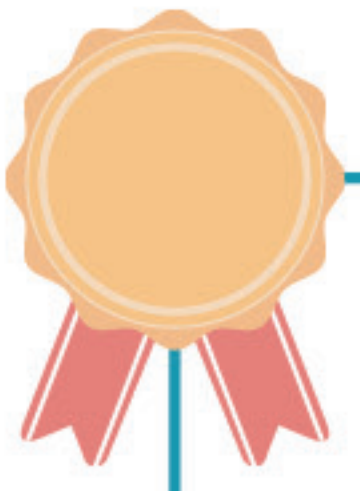
이번 수상은 원무팀 직원 모두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기쁨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라는 마음가짐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공감하고, 더욱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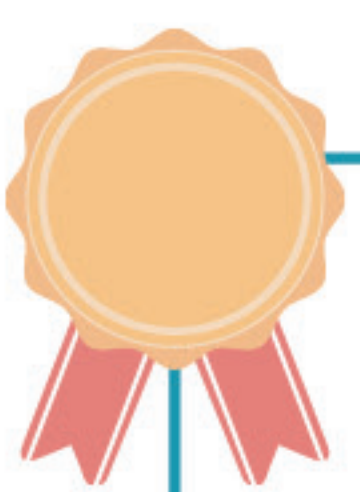


♥ 영상의학과 **백종인** 방사선사

바쁜 촬영실 안에서도 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태도로 환자분들을 대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검사에 대한 긴장감으로 굳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먼저 눈을 맞추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설명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 환자분들에게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자세를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검사 시간이지만, 선생님 덕분에 그 시간이 '무섭지 않은 기억'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병원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멋진 동료이자, 환자 중심의 마음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절과 책임감으로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인: 병동 임거백 병동관리원

이달의 간호사



♥ 63병동 **장혜민** 간호사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하며 아낌없는 도움과 배려를 보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장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분들께 따뜻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천의 글: 63병동 **이강순** 수간호사

장혜민 간호사는 부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서원들과 협력하여 좋은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Quality Conference 강사로 참여하는 등 자기 계발에 꾸준히 힘쓰며 최신 간호지식 습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응대하여 많은 칭찬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과 배려 있는 자세로 동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원 간호기록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 내에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후배간호사 업무를 지원해주는 모범이 되는 간호사로 이에 추천드립니다.

직/원/동/정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신규임용 인사발령 기준

의사		간호사	
•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준영	• 53병동	김찬희
• 건강증진센터	윤숙	• 91병동	장하은
• 소아청소년과	이도진	• 102병동	오수민 윤수연
• 영상의학과	이승준		임현수
		• 간호외래 안과	유민주
		• 응급실	조창형
		• 인공신장실	전지우
		•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김승현
		• 연구지원팀	양인혜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4월 퇴직

약사		간호사	
• 약제부	노화영	• 21병동	김수연 장현지
		• 52병동	여상은
		• 53응급병동	이지아
		• 61병동	배수빈
		• 62병동	서원경
		• 63병동	조혜림
		• 73병동	황주영
		• 91병동	이희수
		• 간호외래 총괄	김현아
		• 간호외래 정형외과	소지현
		• 뇌졸중집중치료실	오세은
		• 심장집중치료실	박슬예
		• 권역외상집중치료실	김보배
		• 권역응급집중치료실	이보은 정금숙
		• 전담간호팀(호흡기내과)	주다희

정년퇴직자

- 간호사 유명인
- 방사선사 김영석



골든타임 4시간, 소아 고환꼬임(염전)

비뇨의학과 김홍욱 교수



비뇨의학과
김홍욱 교수

1. 고환꼬임이란?

고환꼬임은 고환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정관이 꼬이면서 혈액 순환이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성장기 소아와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음낭이 붓거나 붉게 변하고, 때로는 구토나 복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2.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환꼬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격한 운동 후 발생하기도 하며, 갑자기 몸을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고환이 음낭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는 '벨클래퍼(bell-clapper) 기형', 잠복고환, 수평적 고환 등 선천적 구조 이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외상, 추운 날씨, 고환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증상은 무엇인가요?

고환꼬임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꼬임의 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통증의 강도와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통증이 서서히 진행돼 발견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아랫배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단순 복통이나 장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생아는 안절부절못하며 잘 먹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4. 어떻게 진단하나요?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진찰 시에는 정상 고환과 비교해 통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며, 음낭의 붓기와 피부색 변화, 고환 위치 및 크기 등을 살핍니다. 특히 고환이 평소보다 위로 올라가 있거나 수평으로 누워 있는 경우 고환꼬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검사 중 하나는 '고환 올림근 반사' 확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자극했을 때 정상적으로는 고환이 올라가지만, 꼬임이 발생한 경우 반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낭에 빛을 비춰 음낭수종 여부를 확인하거나, 탈장과 감별하기 위한 진찰, 음낭에 대한 색도플러초음파 등을 시행합니다.

음낭 색도플러초음파가 비침습적이면서 검사 시간이 짧고 해부학적 검사와 혈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 위험한 질환인가요?

고환꼬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혈액 공급이 중단된 후 시간이 지체되면 고환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 통증 발생 후 가급적 4시간 이내에 꼬인 부분을 풀어주는 응급 처치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증상이 있나요?

아이가 고환 부위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언급한다면, 지체없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염증이나 타박상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소중한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고환꼬임의 치료는 꼬임이 발생한 시간과 진단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통증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전문의가 손으로 꼬인 고환을 풀어주는 도수 정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꼬임 가능성이 높다면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양쪽 고환 고정술을 시행하며, 고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환 적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 예방법이 있나요?

고환꼬임은 완벽한 예방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음낭 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을 이야기할 경우 단순 염증이나 타박상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 방법입니다.

9. 치료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고환꼬임은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고환 괴사로 인해 고환을 제거해야 하거나 생식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 갑자기 발생한 음낭의 통증

☑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

☑ 고환이 붓거나 붉어지는 경우

☑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발생한 통증

☑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 고환꼬임은 응급질환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이내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달의 법문

시간이 빠르니 공왕공래 말고 착실히 마음공부 하여라



승산 송우진 교무

어느새 6월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땀이 뻘뻘 나는 여름이 슬그머니 다가와 있습니다. 병원 교당에서도 아침에 기도 올리고 교도님들을 만나고 회의와 법회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녁이 되어있어 흠칫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흐릅니다.

6월의 원불교는 추모로 이달을 맞이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거센 파도와 일제강점기의 고통이 극심

해지던 1943년 원불교를 창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개혁 운동을 하시던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 달이기 때문입니다. 추모 행사로서 육일 대재를 모시게 되는데 열반에 드신 소태산 대종사와 제불 제성, 교단의 공도자, 일체 부모의 위패를 모시고 함께 의식을 거행합니다.

저는 6월이 오면 대종사님을 그리며 부촉품을 봉독합니다. 19장, 10쪽으로 구성된 짧은 이 품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으로 대종경의 마지막 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법문이 더 마음에 들어올까. 총부 대종사 성탑 왼쪽 바위에 앉아 부촉품을 조금씩 읽어 갑니다.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 길을 떠나 버리면... 때가 급하여... 이제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내가 만일 즐지에 오래 그대들을 떠나게 되면 그때에

는 어찌하려는가...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겠노라...” 부촉품 곳곳에는 대종사님께서 곧 열반 길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남기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법문 중 올해 원기 111년에는 14장 말씀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문이 긴 관계로 마지막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회를 보는 것은 마치 장꾼이 장을 보러 온 것과도 같나니, 이왕 장을 보러 왔으면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소용대로 사기도 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어야 장에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런즉, 각자의 지견에 따라 유익 될 말은 대중에게 알려주고 의심 나는 점은 제출하여 배워도 가며 남의 말을 들어다가 보감도 삼아서 공왕공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가히 범연하지 못할 바이니라.』

그중에 ‘공왕공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와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가 가슴에 스며 들었습니다. 시간의 속도를 체감하는 순간이 근래 여러 번 있다 보니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그 시간이 매우 순간처럼 느껴져 이 법문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어느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간절한 부촉 법문처럼 공왕공래 없이 착실하게 알뜰하게 마음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온한 진급의 길, 성불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회안내

- 1부 법회** 매주 수요일 12:40
 - 2부 법회** 매주 수요일 15:40
 - 영양팀 법회** 매일 셋째주 수요일 09:40 (장소: 교직원 식당)
- 063) 859-0012**

마음으로 이어가는 생명의 이야기

‘원광대학교병원 발전위원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원광대학교병원의 새로운 도약이 됩니다. 의료의 미래, 소중한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열어갑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불우환자 지원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 구입 등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의 발전
- 학술연구, 장학기금

원광대학교병원 후원계좌

농협 351-1136-1699-73
새마을금고 9002-1935-3455-6

기부 문의

총무팀 전화) 063.859.2064 팩스) 063.858.3922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후원금액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디지털 명예의 전당 등재		●	●	●	●	●	●	●
명예의 전당 동판 명패제작		●	●	●	●	●	●	●
진료비감면율	진찰료				●	●	●	●
	본인부담금				50%	●	●	●
종합건강검진(기부금 10% 이내)			●	●	●	●	●	●
무료주차(1대)				●	●	●	●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년 연속 우수센터 선정
 ‘2024·2025년 우수 권역심뇌질환센터’

2011년 4월 개소이후 공개된
 2012~2020년 운영사업평가 결과
총9회 평가에서 ‘7회 전국1위’
 (2021~2023년 평가 미시행)



보건복지부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원광대학교병원 지정]



충청, 호남권 최초
최신 암 치료용 장비
하이퍼아크-트루빔(TrueBeam)STx 가동

4배 이상 높은 고선량 출력

HDMLC로 더욱 정밀한 방사선치료

피부에 표시나 문신 없이 정확한 방사선치료

HyperArc로 뇌종양에 대한 방사선수술

원광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063-859-1870

권역응급의료센터	1577-3773	전북금연지원센터	063)859-2400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063)859-1506	대표전화/전화예약 1577-3773 응급의료전용헬기 063)837-8334~6 (항공의료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063)859-1991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063)859-1375	종합건강증진센터	063)859-1122	
권역외상센터	063)859-1188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63)859-0051	암센터	063)859-1180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577-3773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063)835-6700	국제진료협력센터	063)859-0123	
고압산소치료실	063)859-1069	익산권지역책임의료기관	063)859-0066	진료협력센터	063)859-2585	